제4강 은일을 꿈꾸었으나

1-죽림칠현, 은일을 꿈꾸었으나

(1) 대숲 사람들의 맏형, 산도

사마의司馬懿의 뒤를 이어 아들인 사마소司馬昭가 정권을 잡고 위나라 황제인 조모曹髦까지 폐위시키기 직전이었던 시대. 대숲에서 노닐던 산도山濤와 혜강嵇康 등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함. 산도는 위나라 황실의 사위였던 혜강, 건안시대 건안칠자의 한 명이었던 완우阮瑀의 아들 완적阮籍, 기주자사의 아들 여안呂安과 함께 하기 시작했고, 완적의 조카 완함阮咸과 유령劉伶, 상수向秀, 왕융王戎 등을 불러들여 함께 했음.
그들이 모인 곳은 수도였던 낙양에서 2백 리 쯤 떨어진 산양山陽(지금의 하남성), 그곳에 모여든 이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산도가 자연스레 중심이 되었음. 상서이부랑尙書吏部郞을 지냄. 진류왕 조환曹奐을 끌어내리고 사마염司馬炎이 황제자리에 올라갈 때에 그를 도와 삼공三公의 반열에 오르게 됨. 동진東晋의 안연지顔延之(384-456)는 죽림칠현에 대해 읊은 「오군영五君詠」에서 그를 빼버렸음.
대권이 조씨에서 사마씨에게로 넘어가면서 대숲에서 은거하던 그들에게도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유혹과 미끼가 던져짐. 그것은 그들의 '은일'을 방해함.

(2) 혜강, 「광릉산」 곡조 속에 떠나가다

--혜강의 장인이 위나라 패왕沛王 조림曹林, 중산대부는 한직이었으나 그는 그 벼슬자리를 그대로 유지함. 대숲의 대장장이. 겉으로 보기에 대숲의 맏형은 산도 같았지만 대숲의 정신적 지도자는 그보다 18살이나 어린 혜강. 산도가 벼슬길로 나오라고 하자 그에게 「산도와 절교하는 글(與山巨源絶交書)」)를 보냄. 그 글을 보낸 2년 후, 혜강은 친구인 여안 사건에 휘말려 죽게 됨. 죽어가는 자리에서 자신의 칠현금으로 「광릉산廣陵散」을 연주함.

"사슴이 어려서 훈련을 받으면 말을 잘 듣지만 다 자란 뒤에 재갈을 물리려 하면 미친 듯 사방을 돌아보고 울부짖으면서 고삐를 끊으려 하고, 끓는 물이나 뜨거운 불 아무데나 뛰어들며, 금재갈로 장식해주고 맛있는 먹이를 주어도 우거진 숲속과 풍성한 풀을 그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다르면 서로 함께 하지 않는 법이라고 했으니 각자 자신의 길을 갈 뿐, 서로가 뜻하는 바를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 똑바른 나무로 수레바퀴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구부러진 나무

로 서까래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나는 성격이 까칠해서 벼슬길에 나아가기엔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는(必不堪者)' 일곱 가지와 '절대 할 수 없는(甚不可者)' 두 가지가 무엇인가.

--종회鍾會와 혜강의 만남.

"무엇을 들었기에 여기에 왔으며, 무엇을 보았기에 돌아가는 것이오(何所聞而來, 何所見而去)?"
"들을 것을 들었기에 왔고, 볼 것을 보았기에 돌아가오(聞所聞而來, 見所見而去)."

(3) 완적, 문턱에 서있던 경계인

--완적의 아버지는 건안칠자 중 한 명인 완우-'분산구재焚山求才'.

옛날 열너덧 살 때(昔年十四五)
뜻한 바 있어 상서와 시경을 좋아했지(志尙好書詩)
갈옷을 걸치고서도 가슴에는 주옥(큰 뜻)을 품었고(被褐懷珠玉)
안연과 민자건처럼 될 것을 기약했지(顔閔相與期)
창을 열고 사방을 내려다보고(開軒臨四野)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들을 기억했지(登高望所思)(「영회시詠懷詩」)

--완적은 사마염이 위나라 황제에게서 선양을 받아 서진西晉을 세우기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음. 살벌한 정치판의 중심에서 살았던 완적, 유명한 명사들조차도 '예교'를 내세우는 사마씨 집단에 의해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완적은 군자들이 떠들어대는 소위 '예교'를 "군자의 예법은 천하를 해치고 위태롭게 하며 죽음으로 내모는 술책"(「대인선생전大人先生傳」)이라고 비판함. 자연계의 통일성과 유기적 질서를 강조하면서 완적은 위계적 질서를 강조하는 세상에 반대했음.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세상.

"귀한 것이 없으면 천한 사람이 원망하지 않고, 부유한 자가 없으면 가난한 자가 다투지 않으며 각기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더 구하려고 하는 것이 없게 된다."(「대인선생전」)

"대저 군주가 없으면 만물이 제 자리를 찾고 신하가 없으면 만사가 이치대로 되며, 만물이 각자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자신의 성정을 다스려 각자의 기강을 위반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만물이 능히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다.... 군주가 세워진 뒤에 포악함이 생겨났고, 신하가 세

워진 뒤에 도적의 해가 뒤따라 생겨났다. 그들은 앉아서 여러 가지 예법을 만들어내어 백성을 속박하고, 어리석고 둔한 사람들을 속인다. 지혜를 감추어 자신들의 신기함을 백성에게 드러낸다. 강한 자는 남들을 노려보면서 잔악함을 저지르고, 약한 자는 애를 태우면서 다른 사람을 떠받든다. 사람들은 청렴이라는 탈을 쓰고 탐욕을 추구한다. 속으로는 음험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어진 척한다. 못된 죄를 저지르고도 후회하지 않으며, 행운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식으로 이름을 드러내고 고관이 되기를 추구하니 바로 그래서 국가가 정체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대인선생전」)
--피비린내 나는 현실은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고, 그는 살아남기 위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음. 꿈꾸는 이상세계가 있지만, 현실 속에서 그것은 실현되기 힘들었음. 마침내 사마소의 휘하에 들어가 보병교위步兵校尉 노릇을 하겠다고 함. 완적의 심적 갈등과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됨.

"슬픔이 있는 건 감정이 있기 때문이네(有悲則有情) 슬픔이 없으려면 생각도 없어야해(無悲亦無思)"

술은 고통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 되어주었고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방어수단이 되기도 했음.

(4) 유령과 완함-술과 함께 한 삶

--경계인으로서의 그들이 몰입할 수 있는 것은 '술'. "명사 치고 목숨을 제대로 목숨을 보전한 이가 드물었(名士少有全者)"던 그 시대에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술이었고 그들을 위로해주었던 것 역시 술.

유령

"하늘이 유령을 낳아 술로 이름을 날리게 하셨다(天生劉伶, 以酒爲名), 마셨다 하면 열 말은 마셔야 하고 해장으로 다섯 되는 마셔야지"
"나 유령은 하늘을 집으로 삼고 집을 나의 잠방이로 삼는데, 너희들이 왜 남의 잠방이 속에 들어온 것이냐"

「술의 덕을 노래함(酒德頌)」
--스스로를 '대인선생大人先生'에 비유, 대인선생은 해와 달을 창문으로 생각하고 온 세상을 정원과 길로 여긴다. 하늘을 장막으로 삼고 땅을 이부자리로 여기며 거칠 것이 없다. 그런 대인선생이 유일하게 힘쓰는 것이 바로 술 마시는 일인데, 앉으나 서나 늘 술잔과 술항아리를 들고 다닌다.

예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그런 대인선생을 비난하지만,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대인선생은 술 한 잔 거나하게 하고 난 뒤 누룩을 베개 삼고 술지게미를 요로 삼아 깔고 누워 푹 잔다. 그렇게 한잠 푹 자고 일어나면 천둥 번개가 쳐도 고요하게 느껴지고 태산처럼 큰 산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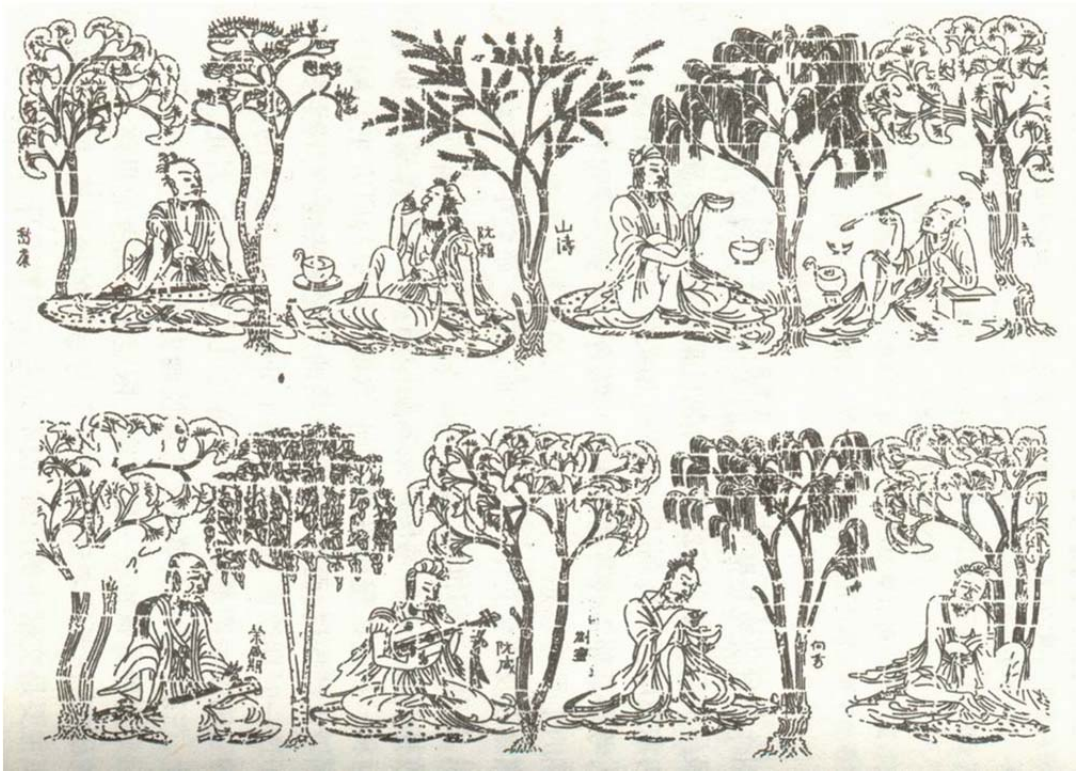
완함

--완적의 조카. 돼지와 함께 술을 마심. 명사들의 '일탈'처럼 보이는 그러한 기행은 그 당시 일종의 유행 같은 것이었지만, 대숲 사람들의 그러한 기행은 예법에 대한 반동, 개인의 자유 표현. 완함의 '거친 베 잠방이(犢鼻褲)' 깃발 이야기.
완함이 타던 악기 '완함'- 절대음감을 가진 듯 했던 완함은 음률을 귀신같이 이해한다고 해서 '신해神解'라고 불림.

(5) 죽림칠현, 그들은 진정한 은자였을까

--조정에 앉아있는 '큰 은자' 산도
--낭야 왕씨 집안 출신 왕융王戎- 종회의 추천으로 벼슬길에 나선 후 '팔왕八王의 난'이라는, 진나라 황실 종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판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높은 벼슬을 다 했음. 하지만 후대의 안연지는 그를 죽림칠현에서 빼버렸음.

--대숲 사람들은 세속에서 떠나려 했으나 떠나지 못했고, 세상은 그들은 세상 밖에 있도록 놓아두지 않았다. 은일을 꿈꾸었으나 은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숲의 현자들.



(그림 설명: 1959년 남경南京 강녕江寧 서산교西善橋에서 발굴된 남조시대 무덤의 묘실墓室 관상棺床 양 옆에 새겨진「죽림칠현과 영계기榮啓期」벽돌 그림. 길이는 각각 2.4미터. 윗줄 왼쪽부터 혜강, 완적, 산도, 왕융이며 아랫줄 왼쪽부터 춘추시대의 은자로 알려진 영계기, 완함, 유령, 상수)

2-도연명, 복사꽃 핀 마을

--동진시대 역시 죽림칠현의 시대보다 나을 것은 하나도 없었음. 도연명이 살았던 시대에 재위했던 황제들 중에서 2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다가 병으로 죽은 간문제를 빼면 나머지 네 명의 황제가 모두 폐위 되는 상황. 도연명 말년에는 동진이 망하고 유유劉裕의 송나라가 세워짐.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었지만 문벌에 대한 중시는 여전해서 도연명처럼 몰락한 사족 집안 출신은 벼슬길에 첫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나이 29세에 첫 벼슬을 했지만 곧 다시 돌아와 버렸고, 36세 쯤에 다시 벼슬길에 나갔지만 돌아오고 나감을 반복함. 41세에 팽택彭澤 현령이 되었다가 아예 돌아와 버림. 그는 애초부터 '국가'나 '왕조'에 충성한다는 마음은 없던 것처럼 보임.

(1) 유가적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젊은 날의 도연명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은 군왕이나 신하 따위는 없는 것이 낫다고 말한 완적의 「대인선생전」과 같은 맥락에 있고, 「도화원기桃花源記」에서 그가 그려낸 아름다운 땅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국가'나 '왕조'와는 거리가 멀었음. 도연명이나 완적이 꿈꾸었던 이상향의 궤적을 따라 올라가면 그곳엔 장자가 있고 노자가 있으며, 더 올라가면 그곳엔 신화적 사유가 있다. 물론 그가 애초부터 유가적 이상을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음.

어려서부터 사람들과 적게 교류하고
육경六經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다(「음주시飮酒詩」 제16수)

복희와 신농의 시절이 하도 오래되어
온 세상에 진리를 찾는 사람이 적다
노나라 노인 공자가 애를 써서
세상을 순박하게 바로 잡아보려 했지
그가 기다리던 봉황은 오지 않았으나
예악이 잠시 새로워지긴 했다
하지만 수수洙水와 사수泗水 지역에서 심오한 그의 말씀 끊어지고(공자가 죽고)
시간은 흘러 미친 진秦나라에 이르렀지
『시경』과 『서경』이 무슨 죄라고,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태워버렸던가
그래도 부지런한 한나라 여러 학자들,
정성스럽게 경전을 전수했지
그런데도 어찌 세상에서는 끊어져
육경을 가까이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음주시」 제20수)

--> 공자가 꿈꾸었던 세상을 그도 한때 꿈꾸었음.

옛 스승 공자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내가 어찌 저버릴 것인가
나이 사십에도 이름이 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하셨지
내 좋은 수레에 기름 치고
내 좋은 말에 채찍질 한다
천리 길 멀다 하지만

어찌 감히 가지 않을 것인가(「영목榮木」)

--한편 「산해경을 읽고(讀山海經)」에서 그는 또한 형천과 정위의 굽히지 않는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꿋꿋한 의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음. 강인하고 굳은 의지로 세상을 바꾸려는 꿈을 갖고 있었으나 그러기엔 세상이 너무 엉망. 어떠한 이름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지만 팽택의 현령 노릇을 하다가 "다섯 말의 쌀에 허리를 굽힐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고향 마을로 떠나버린 깔끔한 선택을 한 이후 그는 훨씬 자유로워졌음. 「돌아가리라(歸去來辭)」는 그 선택의 결정판.

"타고난 본성이 자연을 좋아하니, 그것은 고치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절박하긴 하지만 내가 타고난 본성과 어긋나게 사는 것은 고통이다."(「귀거래사」)

(2) 도연명과 농부의 대화

"남루하게 초가집 아래 사는 것, 고귀한 삶이라 할 만 하지 못하지요. 온 세상이 모두 자기들과 같아지는 것을 중시하는데, 당신께서도 그 진흙탕 속에 함께 섞이셔야지요."
"어르신의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타고난 품성이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고삐잡고 벼슬길 나아가는 것은 실로 배울 수 있겠지만, 제 타고난 품성을 어기는 것은 미혹됨이라 하겠지요. 우선 함께 술이나 드시며 즐기시지요, (이미 돌아온) 제 수레는 다시 돌릴 수 없답니다."(「음주시」제9수)

--도연명은 평안한 은일을 꿈꾸었음.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따고 있자면 멀리 남산이 눈에 들어"(「음주시」제5수)오는 경지, 그는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지 않음. 장자의 말대로 글은 말을 전하지 못하고 말은 뜻을 전하지 못하는 것, 그는 말하고자 하지만 말을 잊음.
--도연명은 또한 윤회를 말했던 불교와 달리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았음. 그저 "산언덕과 하나"가 될 뿐이라고 했음. 죽는 것은 "돌아가는 것(歸盡)", "그저 변화를 따라 돌아가는 것"(「귀거래사」)이라고 여겼음. 연단을 하거나 수련을 하여 신선이 되어 장생불사하기를 꿈꾸지도 않았고,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날 것을 원하지도 않았음. 그냥 죽어 자연 속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었음.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죽는 것은 같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따질 것도 없어"

--그가 돌아갈 것은 꿈꾸었던 그곳은 바로 복숭아꽃 환하게 피어있는 마을, 도화원. 전쟁으로 점철된 민중들의 고달픈 삶, 눈치를 보며 생명을 보전해야 하는 구차한 지식인의 삶, 세상의 안과

밖을 위태롭게 줄타기하며 드나들어야 했던 그 시절의 그들에게 있어서 아득한 그곳, 누구나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도화원, 몽롱한 이상향. 왕자웨이 감독의 영화 『동사서독』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괴로워하는 그들이 언제나 돌아가기를 꿈꾸는 곳, 그곳도 복숭아꽃 환하게 피어있는 마을. 왕자웨이는 도연명이 꿈꾸었던 도화원의 모습을 젊은 청춘들의 어긋난 운명의 시간 속에 배치했음.